

응답할 수 없는 쪽 날 쪽 함(Jaggies)

틈바구니, 날것, 산 자락, 강을 품고, 녹지, 산, 강변, 공원, 숲, 정원, 하늘, 바람, 물, 흙, 꽃, 나무, 새, 곤충, 자연, 생명, 손님, 주인, 도시의 환란, 보살핌과 애씀의 질곡, 겨울잠, 교육지책, 참새, 뱀새, 새봄, 미루나무, 샛길, 봄맞이 줄기 대청소, 저어하는데, (자연을 지키는)망루 역할, 중심가지, 잔가지, 아름다리 거목, 까치집, 포플러나무, 버드나무, 양버들, 싸리 빗자루, 사시나무, 한강변 데크, 지천 둔지, 현역 '할머니 조경가', 선유도공원, 아시아공원, 파리공원, 희원, 양재천, 청계광장, 여의도샛강, 세종호수공원, 서울식물원, 공공공간, 변곡점, 녹색기둥의 정원, 지하수조, 역설적 시공간, 본인이 설계한 자식(공원), 섬의 시간, 한껏, 쇠락했지만, 강건한, 꽃말울, 봄비,

움직임 탐구: 뻗기와 당기기 패턴 (몸 움직임 세상 연결하기.194p)

손끝은 양피지 아니면 래그 페이퍼의 차가운 먼지로 점점 검어진다.

꼼꼼하고 가지런한 글자들로 차려입었지만,

모서리 부분은 세월에, 아니면 쥐들의 이빨에 갇아 먹혀 있다.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작업자 본인이 본인의 아카이브 작업을 물에 뛰어드는 것, 물속에 잠기는 것, 심지어 물에 빠져 죽는 것에 빗대는 경우도 많고...

아카이브에서 내용상 동일한 자료들의 방대한 덩어리, 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기증 또는 유증한 자료들의 방대한 덩어리를 fonds라고 한다. (*각주설명: 아카이브에 관한 전문용어, 바다 밑바닥이라는 뜻도 있다.)

“자료가 그 형태 또는 재질과는 상관없이 유기적, 필연적으로 축적되어 있을 때, 별도의 정렬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 때 그 자료 덩어리를 풍이라고 한다.”

사서들이 아카이브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은 예컨대 아카이브 선반이 몇 킬로미터라고 하는 식이다. 이 바다를 길들이는 영리한 방식이면서 동시에 언젠가 이 바다를 철저히 정렬하겠다는 의욕의 반영일 수도 있다.

중심의 자양분

건강한 세포, 유동체, 장기, 근육, 뼈 그리고 삶-정신은 중심 지지에 매우 중요한 것들로 자양분을 필요로 한다. 세포 호흡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나는 제6장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호흡을 조절하는 데 시간을 쓰도록 권장한다. 중심의 자양분은 또한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오염된 공기와 담배 연기 속에서의 호흡은 세포에 필요한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 영양분 역시 생명체를 지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양학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서로 완전한 삼차원적 관계를 시각화한 내부 장기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습하면(내부 중심이 더 중요해지는) 장기들이 더욱 생기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미터법의 비유는 한 가지 모순을 만들어낸다. 아카이브가 도로처럼 킬로미터로 측정되는 자료 선반들이라면, 아카이브 자료를 해독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고속도로처럼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독하겠는가.

(*주석: 1980년의 계산에 따르면, 프랑스의 보관소 및 도서관 자료는 연평균 75킬로미터씩 늘어나고 있다.)

일상이 옷감이라면 아카이브는 옷감의 해진 구멍이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일상의 안쪽을 엿보게 해준다.

3. 핵심적 목적을 찾아라 -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찾아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라. 무엇보다 중요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삶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감정적 중심을 찾아라. 각각 하나하나를 시도해보라.

[포함된 책들]

- 1) 디스토피아 | | | | | 디지털이다
- 2) 가*오*니*스*오*스 | | | | | 공원주의자
- 3) 오*코*버*츠*하*오* | | | | | 아카이브 취향
- 4) 시*모*드*르* | | | | | 사물들
- 5) 모*모* | | | | | 오*니*가*리*하*기* | | | | | 몸 움직임 세상 연결하기